



산업보건 주요뉴스



수리·정비 시 '끼임'사고 조심하세요 -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최근 4년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분석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끼임' 사고로, 주로 수리나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 전체 업무상 사고사망자: 882명 / 제조업 끼임 사고사망자: 60명 (잠정통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4년간(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대부분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이거나, 제대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여 발생했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약 54%로, 실제 비정형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형 작업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인물별로는 벨트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지게차 순으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방호설비 설치 대상 132건 중 미설치로 인한 사망건수가 115건(87.1%)인 반면, 방호설비를 설치하였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4건(3%)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최근 4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하는 보고서

재해발생일 기준 4년간(2016년~2019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분석 가능한 중대재해 보고서 272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이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 사업장의 재해율과 연근로손실일수가 1/5로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수리·정비 시 '끼임'사고 조심하세요"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보호 나선다 - 사업장 직접 방문,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을 방문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 통증호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노동자 증상 등을 조사하고,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방법 등 기술지원을 한다.
- 보호대 지원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손목, 팔목, 팔꿈치, 무릎 등 신체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며,
- 통증호소자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으로 약 4,600개소에 무상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3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사업 외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필수노동자를 위해 「직종별 건강진단」을 3월 말, 「과로사 고위험군 정밀 건강진단」을 상반기에 실시해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보호 나선다”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 안전보건공단, 「직업트라우마센터」 5개소 신설, 전국 13개소로 확대 운영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 임상심리사(2급이상)·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이상·기타 정신보건 관련 국가 면허 또는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한다.

공단에는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사업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 지원하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은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전화: 1588-6497 (가까운 센터 확인, 상담예약 가능)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 ▶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천개)은 본사중심으로 안전관리 하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실시
- ▶ 민간재해예방기관(건설·제조 약 300개)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 대폭 개선
- ▶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 및 개선명령

정부는 3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 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올해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끼임사고는 안전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